

푸조 CEO 방한... “진보적인 쾌락주의자 만족시킬 SUV”

첫 ‘푸조 브랜드 데이’ 개최

스텔란티스-푸조 합병 후 계획 소개 전시장·서비스센터 18개씩 확대 IAP서 ‘뉴 푸조408’ 첫 번째로 선보

푸조가 세계에서 단 1대만 있는 콘셉트카를 선보이면서까지 국내 시장 재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4일 서울에서 ‘푸조 브랜드 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푸조 브랜드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스텔란티스와 푸조 합병 이후 약 1년 반 가량 변화와 미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조는 네트워크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며, 새로운 딜러사를 추가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18개씩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신규 전시장을 개장하고 강남 전시장도 서초로 이전하는



린다 잭슨 푸조 CEO가 푸조 인셉션 컨셉트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등 개편 작업도 본격화했다.

특히 푸조 글로벌에서 브랜드 CEO인 린다 잭슨과 디자인 디렉터 마티아스 호산까지 참석해 국내 시장에 대한 중요성도 확인했다. 린다 CEO는 한국이 전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한국 시장 방향성이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전략적인 거점임을 강조했다.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IAP) 지역에서 뉴 푸조 408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이유도 한국 시장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조는 23일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MZ세대를 겨냥한 댄스 챌린지 마케팅을 펼치는 등 노력도 병행 중이다.

린다 잭슨 CEO는 “한국 소비자들, 특히 도심과 레저 생활에 열정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열려와야 함께하는 세상이 더 낫다고 믿는, 진보적인 쾌락주의자들에게 세단과 SUV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뉴 푸조 408은 최고



24일 서울 강남구 SJ.콘서트홀에서 열린 푸조 브랜드 데이에서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푸조는 이날 전세계에서 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인셉션 콘셉트’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2025년부터 양산할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인셉션 콘셉트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 STLA 라지를 기반으로, 100kWh 배터리 리로 최장 800km까지 달릴 수 있다. 최

고출력은 680마력에 달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해 대시보드를 없애고 스티어링휠을 대체할 ‘하이퍼 스퀘어’를 탑재하기도 했다.

푸조는 전동화에 대한 계획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른바 ‘E-라인 프로젝트’. STLA 플랫폼을 활용한 전동화와 함께 충전 및 커넥티비티까지 고객 경험 확대, 그리고 친환경 소재 사용 등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5E’ 목표를 포함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푸조 브랜드 데이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헤리티지로 결속된 푸조의 과거, 그리고 뉴 408이 대표하는 푸조의 현재, 푸조 인셉션 컨셉트를 통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뉴 408 출시를 기점으로, 올해 한국 시장에서 푸조 브랜드를 알리고 아이덴티티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SK온,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 유치... 최대 1.24조 확보

MBK컨소시엄에 약 1조 투자 받아 배터리 사업 성장성·경쟁력 증명 현대차·기아 채무보증 내용 공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상장 전 지분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SK온이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조달 규모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SK온 투자유치를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했다. 이번 계약은 SK

이노베이션, SK온, MBK컨소시엄 간에 체결 예정이며, SK온은 MBK컨소시엄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500억원)를 한도로 투자받을 예정이다. MBK컨소시엄에는 미국, 중동 지역 등의 글로벌 재무적투자자(FI)들이 참여한다.

이에 더해 한국투자PE이스트브릿지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를 논의 중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상업은행 사우디 국립은행(SNB) 자회사 SNB캐피탈도 최대 1억44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SK온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로써 SK온

은 총 9억4400만 달러(약 1조2400억원)를 한도로 하는 추가 투자 금액을 확보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세계 금융환경이 신규 자본유치에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과 SK온의 기술 경쟁력이 자본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SK온은 지난해부터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 속 선제적인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추진해왔으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SK온 측은 “300조원에 가까운 누적 수주잔고액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는다는 평가”라며 자평했다.

SK온은 올해 3월까지 한투PE이스트브릿지컨소시엄을 통해 투자자금 1조2000억원을 조달했으며, 모회사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원을 투자받아 총 3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이번 1조2400억원 한도의 추가 조달까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이끌어내

며, 최대 4조4400억원 조달에 성공하게 됐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현대자동차와 기아로부터 2조원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채무보증하는 내용도 같은 날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다양한 재원 확보 방법을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객사는 배터리셀의 안정적 확보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K온은 한국과 미국, 중국, 헝가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8GWh인 연간 생산능력을 2025년 최소 220GWh로 늘릴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흡사... 인물 대사도 잘 들려”

KT 셋톱박스 신제품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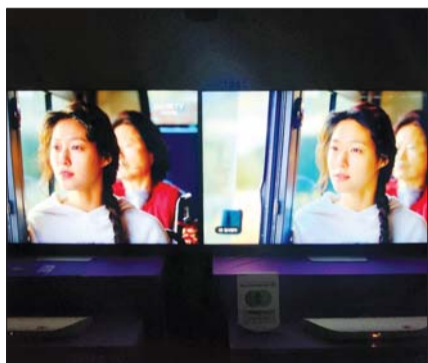
IPTV 최초 HDR10+·돌비 비전 지원 인물·풍경 자연색 가깝게 질감 살려 올인원 사운드바, 영화관 음향 구현

“배우의 목소리가 입체감 있고 생생했다. 볼륨감이 높고 생생하게 울리는 사운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더 빠져들게 만들게 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KT 셋톱박스 신제품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올인원 사운드바는 IPTV 셋톱박스, 무선인터넷 공유기, AI(인공지능) 스피커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제품이다.

이 셋톱박스는 특히 IPTV 업계 최초로 HDR10+ 및 돌비 비전을 동시에 지원한 게 특징이다. 또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해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고음질을 제공한다.

HDR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화면의 가장 밝은 곳부터 가장 어두운 곳에 이르기까지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HDR10+를 적용하고



왼쪽 TV에서는 HDR10+가 지원되지 않고 오른쪽 TV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된다. 오른쪽 영상에서 인물의 밝고 어두움이 한층 더 잘 느껴진다.

있으며, LG전자는 돌비비전 기술을 적용해 이 셋톱박스에는 2가지 기능이 모두 채택됐다.

또 기존의 셋톱박스가 AI(인공지능) 스피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여러 케이블을 설치해야 해 단말기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데, 올인원 사운드바는 전원선 1개만 보이고 다른 선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거실에 설치해도 미관상으로 거실을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와이파이 설정 및 비밀번호를



왼쪽이 돌비비전이 지원되지 않는 TV, 오른쪽이 돌비비전이 지원되는 TV 제품. 돌비비전 지원 제품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더 생동감 있게 보인다고 했다.

확인하려면 공유기 뒷면에 적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해 불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셋톱박스는 비번을 입력하지 않고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모바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해져 무척 편리했다.

시연행사에서는 우선 첫번째로 HDR10+ 지원 기능으로 영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관찰했다.

오른쪽 TV에서 HDR10+를 지원하니 OTT 영상에서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보였고 밝은 부분은 한층 밝게

느껴졌다.

조승제 KT 콘텐츠마케팅팀 차장은 “삼성전자의 HDR10+이 지원되는 제품은 밝은 부분을 극대화해 준비했다. 배우 얼굴을 밝게 보정해주고, 왼쪽은 하늘 색깔이 탁한 데, 오른쪽 HDR10+ 지원 제품은 하늘 색깔을 실제에 가깝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불빛을 밝게 보이도록 세팅했고 가구 색도 자연색에 가깝게 질감을 살렸다.

멀리서 보면 왼쪽 TV와 오른쪽 TV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물의 밝고 어두움이 한층 뚜렷하게 느껴졌고 색감도 더 일상에 가까운 색감이 느껴졌다. 벗꽃 색깔도 더 밝게 연출했고,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인물이나 사물들의 디테일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돌비비전이 지원되는 TV로 이동했다. 다만, 왼쪽의 돌비비전이 지원되지 않는 TV에서는 색감이 더 붉은 색빛도 많이 돌아 더 화사해보였는데, 오른쪽 돌비비전 TV는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화사한 맛은 떨어졌다. 색감이 있어 자꾸만 돌비비전을 지원하지 않는 TV의 색감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는 빛이 밝아서 외곽의 색이 명확하지 않은

데, 오른쪽 돌비비전 지원 TV에서는 색이 더 명확하게 보였다.

조승제 차장은 “우주 장면을 볼 때도 왼쪽 빛은 뿌옇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더 3배가 명확해 보인다. 오른쪽은 하수 빛 같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반해 왼쪽에서는 색이 잘 구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돌비비전 지원 TV에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이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보이며, 더 사물이나 사람이 생동감이 있게 보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인원 사운드바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됐는데, TV가 이를 지원하지 않아도 사운드바가 있다면 기술 체험이 가능하다.

또 넷플릭스의 콘텐츠 ‘F1: 본능의 질주’를 재생하니 자동차 엔진음이 일반 TV 수준이 아닌 영화관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더 증폭돼 구현됐다. ‘보이스 부스트’ 기능은 고객들로부터 영상을 감상할 때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음량을 높이면 효과음까지 커져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인물 음성의 주파수만 높여 대사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KT는 올인원 사운드바에 빠른 충전으로 오랜 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도 보였다.

/글·사진 채윤정 기자 echo@